

"영업일 방식"과 "T+숫자 방식"

우선 영업일이라는 개념에 대해 알아보시다. 영업일이란 말 그대로 영업이 이뤄지는 날, 정확히는 증권 거래소가 개장하여 매매가 이뤄지는 날을 의미합니다.

* 이 영업일은 매매가 이뤄진 날도 포함해 칩니다. 그러니까 오늘 내가 주식을 산 매매가 이뤄졌다 하면 그날이 바로 "1영업일" 입니다. 즉 영업일을 셀 때에는 기준일을 시작일, 1영업일로 셉니다.

쉽게 예를 들어서 볼까요?

2016년 2월 2일(화) 제가 미래제과의 주식 10주를 5만원에 팔았습니다. (주당 5,000원)
그렇다면 2월 3일(수)는 2월 2일 기준으로 몇 영업일일까요?

자 봅시다. 기준일이 시작일, 1영업일이라고 했습니다. 고로 1영업일은 2월 2일입니다.
그렇다면 이제 체크해야 할 것은 수요일날 거래소가 열리냐 여부입니다. 2월 3일은 거래소가 정상营业을 합니다. 그렇다면 2월 3일(수)는 1영업일의 다음날, 2영업일이 됩니다. 즉 2월 2일이 1영업일이니 그 다음날은 2월 2일 기준으로 2영업일이 됩니다.

그렇다면 여기서 논의를 확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
2016년 2월 11일(목)은 2016년 2월 2일 기준으로 몇 영업일일까요?

이 문제도 동일하게 풀 수 있습니다.

2016년 2월 3일, 2월 4일, 2월 5일은 거래소가 열려 정상적인 매매가 이뤄지므로 영업일의 범주에 들어갑니다. 그런데 문제는 바로 2016년 2월 6일~2월 10일이 문제가 됩니다.

보면 2016년 2월 5일과 2월 6일은 주말이라 거래소가 열리지 않습니다. 고로 비영업일입니다.

2월 8일부터 2월 10일은 설날로 인한 공휴일과 대체휴일이 있어 거래소가 역시 열리지 않습니다. 고로 비영업일입니다. 이 영업이 열리지 않는 날은 영업일에서 제외해주어야 합니다.

그렇게 보면 정답이 나옵니다. 2월 2일을 1영업일로 기준해서 날짜를 세 봅시다. 11일까지는 10일이 있는데 여기에 비영업일이 총 5일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세면, 2016년 2월 11일은 2016년 2월 2일 기준 5영업일이 됩니다.

그렇다면 T는 무엇이나. T는 거래일(Transaction date)의 약어입니다.

트랜잭션 데이트는 영어로 "거래일"이라는 뜻 입니다. 하지만 세는 방법이 앞에서 설명한 "영업일 방식"과 다릅니다.

T는 말 그대로 거래일, 거래가 이뤄진 날짜입니다. 그렇다면 T+1은 무엇일까요? 거래일에 1을 더한 날, 즉 거래일의 다음날입니다. 물론 여기서도 위 "영업일" 방식과 같이 비영업일은 제외됩니다.

다시 위의 예시로 돌아갑시다. 2016년 2월 11일(목)은 2016년 2월 2일 기준으로 몇 "T+숫자" 일까요?

앞에서 기준일부터 세기 시작하는 "영업일" 방식과 달리 "T+숫자" 방식은 기준일을 T로 잡고, 여기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셉니다. 그러니까 2월 11일은 T+4가 됩니다. 영업일 방식과 달리 기준일(2월 2일)을 포함해 세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부터 세므로 "T+숫자"의 숫자는 영업일 방식보다 하나가 적게 되는 것입니다.

(물론 앞에서 말했듯이 주말, 공휴일 등 영업이 이뤄지지 않는 날짜는 제외해야 하겠죠?)

주식의 결제는 3영업일, T+2에 이뤄져

✓ '매수·매도' 등의 거래 자체로
해당 귀책을 따름.

그렇다면 처음에 알려드린 정답으로 돌아가 봅시다. 앞에 "3영업일 결제" 혹은 "T+2 결제"가 된다고 했습니다. 즉 내가 주식을 샀다 하더라도 실제 주식이 결제되고 내 주식이 증권계좌에 들어오는 것(이를 입고라고 표현합니다.)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.

"아니 문방구에서 지우개 하나를 사도 돈을 주면 바로 물건을 주는데, 주식은 왜 이리 시간이 걸리죠?"

그 이유는 주식은 단순히 지우개와 다르기 때문에 진짜 결제가 이뤄지기까지 "절차"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. 혹시 매매가 잘못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정정하는 것(착오 매매의 정정), 매매와 결제의 확정, 결제대금과 증권의 수수, 명의개서의 절차 등 각종 복잡한 절차가 이뤄집니다.

만약 주식시장에 거래자가 극히 소수에 불과할 경우에는 이런 절차가 하루 만에 이뤄질 수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은 불특정 다수가 거래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끝내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국에 비하면 결제일이 빠른 편입니다. 일본, 미국, 영국, 프랑스 등은 T+3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4영업일, T+3에 실제 주식 결제가 이뤄진다는 뜻입니다. 특히 미국은 지역에 따라 T+6, 7영업일 제도를 적용하기도 합니다.



"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. 지금 제가 주식을 팔았는데요. 팔고 남은 대금으로 새로 주식을 사려면 3영업일(T+2) 이후까지 기다려야 하나요? 결제가 3영업일(T+2)에 된다면, 실제 돈도 이 때 들어온다는 이야기니까요. 정말 그런가요?"

정답은 "아니다" 입니다. 즉 주식을 판 다음, 그 대금이 실제 내 계좌에 입금되지 않더라도 이 대금을 바탕으로 새로 주식을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. 이는 "유가증권 대체결제제도" 덕분에 가능합니다.

예시를 들어봅시다. 2016년 2월 2일(화) 제가 미래제과의 주식 10주를 5만원에 팔았습니다. 그리고 바로 그날(2월 2일) 대금 2만원(제세금은 편의 상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.)을 들여 미래화학의 주식 20주를 산다고 합시다.

거래의 흐름을 짚어봅시다. 1) 먼저 제게 미래제과 주식을 5만원 주고 산 사람(들)이 있고 2) 저에게 5만원에 미래화학 주식을 판 사람이 있을 겁니다. 거래일이 T+2가 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위 1)과 2), 저 사이에는 직접적인 현금 교환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.

하지만 "유가증권 대체결제제도"에 따라 실제 주식과 현금이 서로 교환되는 것이 아니라 계좌 간 대체돼 처리가 됩니다. 고로 실제 제가 통장에 든 돈은 없지만 이미 전표 상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, 이를 가지고 미래화학 주식을 사는 등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.

주식매매와 반대로, 현금 출금은 불가능합니다. 실제 우리가 은행이나 CD기, ATM 등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면 계좌에 실제 돈이 있어야 하는데, 전표 상으로 대체돼 거래가 됐다 하더라도 실제 현금이 들어온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.

위 예시로 살펴보면 1) 내가 미래제과를 팔고 번 돈 5만원 중 2) 미래화학을 산 돈 2만원을 제한 3만원을 실제 은행에서 출금하려면, 3영업일이 지나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.